

지역 소식통

부안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오는 30일까지 '수입(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 기간을 정했다.

관련하여 1차로 지난달 31일에 전라북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안해양경찰서 합동으로 수산(일본산)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수산물 소매, 유통업체,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횡집 등을 대상으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이 등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에 대한 유통경로 및 증빙자료 비치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내버스 승강장 냉·온열벤치 33개 설치

정읍시가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확충에 나섰다.

정읍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33곳에 스마트 냉·온열벤치를 설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스마트 냉·온열벤치는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더운 날씨에는 냉각시스템이, 추운 날씨에는 온열시스템이 구동돼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사계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달까지 승강장 20개소에 스마트 냉·온열벤치를 추가로 설치,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100개소에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더위와 강추위에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냉·온열의자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최초 전승지 황토현전적 종합계획...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는 경희대 임형진 교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병학 부장, 정읍신문 이준화 국장,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이사장 등 6명의 전문가와 시 관계자 3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정읍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황토현전적지가 동학농민군이 최초·최대의 승리를 부각할 수 있는 전승지로서의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1983년부터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황토현전적지 구조물의 부조화,



관람 동선에서 혼선을 드러내고 있는 시설물을 정비, 사적지 전체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있는 황토현전적지는 1894년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관군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했던 장소다

당시 농민군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행을 견디지 못하고 봉기해 고부를 점령했다.

이후 농민군은 관군과 황토현에서 대치하다 4월 6일 밤 관군을 기습공격해 대부분의 관군이 전사하고 농민군은 첫 승리를 거둔다.

농민군은 이를 계기로 1개월 만에 호남지방을 석권했다. 황토현에서의 승리는 동학농민혁명을 크게 확대시키는 계기가 돼 정읍의 혁명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를 기려 지난 2018년 황토현전승일(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공모사업 100억원 확보

고창군, 개별경영체 · 민간투자사 협력 관광지 추진

고창군이 100억원 규모의 '농촌관광 스타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5도 2촌 시대를 이끌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창군의 활력넘치는 도전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라북도 주관 '농촌관광 스타마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만 100억원(도비 40억원, 군비 40억원, 민간 20억원) 규모로, 민선 8기 전라북도의 대표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중 하나다.

고창군은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유원지에 와인밸리지를 만들고, 특화마을(용계, 용산, 진마, 안현)과 개별경영체, 민간투자사가 협력해 매력적인 관

광지를 추진한다.

와인 밸리지는 고창의 특화자원인 복분자를 테마로 한다. 다양한 와인체 합시설, 지역특산물판매장, 와인전시·프로그램 운영과 스타마을사무국을 설립해 농촌관광 홍보와 특화상품을 브랜딩해 스타마을 거점역할을 담당한다.

'특화마을'은 사무국과 연계·협력해 각 마을이 가진 풍부한 자연생태 경관, 인문학 자원, 먹거리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장애물 없이 탁 트인 논밭과 동네 가득한 흙냄새, 아궁이에 불 지펴 해 먹는 밥상 저녁에는 쏟아질 듯 반짝

거리는 별을 느끼며 고창만의 매력적인 농촌관광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차례 보고회와 우수사례지 견학을 추진하는 등 공모사업 준비를 해왔다.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전문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모선정을 위한 지역주민, 개별경영체의 열망 또한 컸다. 특히, 심덕섭 고창군수와 노형수 부군수가 수차례 전복도와 연락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의지를 설명하며 실무작업을 이어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행정과 의회 지역민과 개별경영체, 투자사가 하나로 뭉친 결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지난 2일 선운산농협유통센터에서 '수박 출하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전국의 소비지와 만난다.

"달고 맛있는 고창수박 만나보세요"

선운산농협유통센터서 '수박 출하식' 열어

고창군이 지난 2일 선운산농협유통센터에서 '수박 출하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전국의 소비지와 만난다.

출하식은 노형수 고창부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회 NH농협 이문구 고창군지부장, 김기욱 선운산농협조합장 생산능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노형수 고창부군수는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고 출하하기까지 수박 생산 농가와 선운산농협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고창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시장경쟁력을 갖춰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장으로 유통되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선운산농협은 선운산고창수박영농조합법인과 공동선별·공동출하를 확대하고, 상품성 향상과 수박 유통 규모 확대로 시장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노형수 고창부군수는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고 출하하기까지 수박 생산 농가와 선운산농협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고창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시장경쟁력을 갖춰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일담배 공동작업장 준공식 개최

정읍염연초조합(조합장 정영호)은 지난 2일 부안군 일담배 재배농가의 숙원사업이었던 부안 일담배 공동작업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이현기 부안군의회 의원, 신영배 전주일보 사장, 농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부안 일담배 공동작업장은 총사업비 5억7천만원(도비 1억7천, 군비 1억7천, 자부담 2억3천)이 투입되었으며, 줄포면 장동리 일원에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일담배 생산농가들이 공동작업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고된 수작업으로 귀하게 수확되는 일담배의 품질향상과 생산능가 소득 증대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시설인 공동작업장 준공을 계기로 부안군 일담배의 가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이번 일담배 공동작업장 완공으로 일담배 공동작업에 필요한 장소 확보는 물론, 노동력도 획기적으로 절감해 일담배 생산물량의 안정적인 수매는 물론 고품질 일담배 생산으로 관내 농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개관... '생태관광 명소 발돋움'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인근에 조성된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방문자센터)가 지난 2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전북도의원과 정읍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순서는 유공자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월영습지는 월영산 꼭대기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로 과거 화전민의 농경지로 사용됐던 폐경지가 50

여년간 방치되면서 습지로 천이(遷移)돼 습지로 복원된 곳이다. 특히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어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

솔티마을 주민들이 가꾸고 운영하는 솔티숲은 과거에 내장산 국립공원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아름다운 원시 숲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깃대종인 비단벌레와 진노랑산사슴 같은 멸종위기종과 733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가치를 인정해 '국가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했다.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는 생태관광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있어 각종 생태관광 활동의 연결 기능을 담당한다. 또 방문자들에게 즐거운 체험과 교육 기회, 고즈넉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실, 휴게실, 상품판매실 등을 갖췄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방문객이 풍부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